남한강 유역 충주·여주의 양안과 지역사 자료의 조사

신 영 우*

Ⅰ. 머리말
Ⅱ. 연구개요
Ⅲ. 전산화 작업의 방법
Ⅳ. 연구의 분야별 내용과 성과
Ⅴ. 연구 결과의 활용과 전망

Ⅰ. 머리말

중원문화연구소에서는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으로서 한말 광무 양안의 전산화(데이터베이스 화) 작업 및 이를 이용한 조선시대 사회사 및 지역사 연구사업을 2002년 8월부터 2차에 걸쳐 6년 째 수행해 오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의 과제는 "충북 근현대 사회경제 변동 연구 — 광무양안과 향촌사회 자료에 나타난 진천군의 근·현대 100년 —"[1]이다. 이는 충북 진천군의 양안을 대상으로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수행되었다. 두 번째 과제는 충주와 여주 양안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강유역(충주, 여주)의 양안과 지역사 자료의 조사 및 전산화"[2]이다. 이 사업은 2005년 9월부터 3년 기한으로 시작하여 현재 3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量案은 郡縣 단위로 작성된 조선시기의 土地臺帳이다. 여기에는 각 면과 필지별로 토지의 면적과 모양, 소유주와 경작자, 가옥의 크기와 구조 등이 기록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광무 양안은 1898~1904년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조선왕조의 전통 방식으로 작성된 마지막 양안이다.[3]

조선시기의 군현들은 면적과 인구 차이가 매우 달라서 크고 작은 여러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19세기 말 충주와 여주는 다른 군현에 비해 매우 큰 군현이었다. 특히 충주는 38개 面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작지가 약 21,142結, 戶口數 19,624戶, 인구 107,693명의 大邑이었다. 보통 크기의 군현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였다. 여주의 경우 경작지가 4,700結, 호구는 6,800戶, 인구는 31,800명이었다.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 학진 과제번호 AS1009
2) 학진 과제번호 AM0001
3) 김용섭, 「光武年間의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下)』, 일조각, 1968(증보판 1984).

특정한 시대의 사회경제 구성은 그 시대의 구조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조선은 농업을 기본 산업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을 통해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고, 재산 소유와 증식의 방법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대장이 지니는 가치는 더욱 크다. 더욱이 양안에는 토지규모와 소유, 경작관계 만이 아니라 관청, 사찰, 가옥, 지명, 도로의 위치와 규모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사회사와 지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안은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사 연구에서 일부 이용되었을 뿐,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양안에 기록된 자료가 갖는 방대한 규모 때문이었다. 필지별로 기록된 양안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려면 각 기재항목별로 합산해서 통계표를 완성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이 통계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面만 해도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통계를 얻을 수 있다. 필지당 기록한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항목과 이름 그리고 각종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중원문화연구소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군현 단위로 양안에 기재된 모든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통계 내는 전산화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의 중심은 각 필지별로 기록된 사항을 입력해서 면과 마을별, 그리고 인명별로 항목을 구분해서 계량화를 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양안의 모든 기재사항을 전산자료로 입력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역사 자료를 발굴해서 이를 서로 비교하는 사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양안을 이용하여 현재도 사라지고 있는 마을과 들의 지명을 복원하는 등 조선사회의 실상을 깊이 있게 규명하는 방법론과 연구모델을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연구에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는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방대한 작업량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이었다. 양안에 나온 각종 수치를 입력하고 교열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통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열을 치밀하게 보아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진천과 충주 여주 양안의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안의 가치가 연구자들에게도 새롭게 주목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지와 가옥 그리고 주민들에 관한 내용은 지역사 연구의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료와 조사 내용을 활용하는 연구 방식의 개발에 관심을 돌려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학설과 방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光武 年間에 작성된 다른 군현의 양안 자료를 더 많이 입력해서 통계자료를 더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도 내륙 산간 군현과 평야지대 그리고 연해지역의 군현을 망라해서 양안자료를 입력하고 그 통계를 서로 비교하면 각 지역의 차이와 함께 한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더 세밀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양안 자료를 통한 연구가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비교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임용한 전임연구원을 비롯 여러 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수행한 양안의 전산화 사업에 관한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Ⅱ.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군현 단위로 작성된 양안 전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지금까지 양안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통계와 새로운 영역의 자료와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전은 20년마다 실시해서 새로 작성한 양안 3부를 戶曹와 해당 道·郡에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萬機要覽』에는 구체적인 양전법[4]에 대해 나와 있다. 그렇지만 비용과 인력 등의 소요가 막대해서 이 규정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나 10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전면적인 양전사업은 시행할 수 없었고, 지방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실제의 토지 소유나 경작내용을 양안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收稅를 맡은 관리들이 부정을 행하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

[그림 1] 광무양안

4) 『萬機要覽』 財用編 二, 田結, 量田法. "田은 字號를 붙이되 千字文의 次第를 사용하고 다시 1·2·3으로 차례를 정하였는데, 묵은 밭과 일군 밭을 막론하고 만 5결이면 한 字號로 표한 다음에 田의 동·서·남·북의 四標와 주인의 이름을 量案에 懸錄하되, 늘 경작하는 것은 '正田'이라 일컫고, 경작하다 묵히다 하는 것은 '續田'이라 일컫고 年久하도록 陳廢되어 등급을 낮추어 세를 감하는 것은 '降等田'이라 하며 강등한 뒤에 경작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또 강등해서 속전으로 하여 '降續田'이라 하고 帳籍 외에 새로 일군 것은 '加耕田'이라 하고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어 조[粟]를 심는 것은 '火田'이라 한다. 묵은 밭은 경작하기를 권하여 起墾한 곳은 일일이 開錄하여 戶曹에 보고해서 3년 동안 감세케 하고, 기간하였다가 도로 묵힌 것은 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한제국에 들어와서 1898년(光武 2)에서 1904년(光武 8)에 이르는 시기에 대대적인 양전사업이 시행[5]되었는데 숙종 말년의 三南 양전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일제가 침략을 목표로 시행한 토지조사에 앞서서 조선국가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양전이었다. 따라서 전통 양식으로 기재한 이 광무 양안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회의 여러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양안이 역사자료로서 갖는 중요성은 조선후기 사회변화를 알려주는 기본사료로 활용된 사실로 드러난다.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에서 오는 계층분화 현상도 양안연구로 확인하였다. 광복 이후 한국사학계가 이룩한 일정한 성과인 자본주의 맹아론도 양안 연구에서 비롯되었다.[6]

그러나 양안을 분석해서 조선사회의 성격을 규명한 이 같은 연구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양안 자료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1개 면 정도의 사례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군현의 특징을 논해왔다.

면 단위의 분석은 표본의 범주가 적다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작은 경우 한 군현의 면은 10개 전후이고, 큰 경우는 40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군현을 단 하나의 면만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일반화를 꾀한다면 그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三南에서 특정한 군현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각기 하나의 면만 통계를 내어 그 결과를 삼남 전체의 특징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군현의 여러 면 중에서 단 하나의 면만 통계를 내어 활용한다면 그 면의 대표성 자체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한 군현 안에서도 각 면은 자연 환경은 물론 인문 지리상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농경지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산간에 위치한 면의 통계는 농업생산이 많고 인구가 집중된 三南의 한 道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왕실이나 권세가의 농장이 집중된 면도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궁방전의 규모를 헤아려 한 군현이나 한 도의 토지소유를 밝혀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양안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작업의 핵심은 농민들의 토지소유와 경작규모를 밝혀내는 것이다. 조선국가가 양안을 작성한 이유도 농민들의 토지소유를 확인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가 한 면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적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이라도 면의 경계지역에 살았을 경우에는 면의 경계를 넘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특히 지주층들은 여러 면에 걸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런 실제의 모습은 한 면의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면 단위의 분석이 지닌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다.

1개면만 통계 내어 분석했을 때 그 군현의 유력한 지주가 해당 면에 극히 적은 토지를 갖고 있다면 빈농으로 파악될 수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군 단위의 통계가 필요한 것이고, 군

---

5) 왕현종,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한국사연구』77, 한국사연구회, 1992

6) 김용섭,『조선후기 농업사연구 Ⅰ』, 일조각, 1970 ; 조용범 외,『한국자본주의성격논쟁』, 대왕사, 1989 ; 이영훈,「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역사와 현실』45, 2002 ; 宮嶋博史,「東アセア小農社會の形成」『長期社會變動』東京大出版會, 1994.

단위의 통계는 면 단위의 통계에 비해 실상에 더 근접해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군현 단위의 통계가 온전한 것은 아니다. 군현의 경계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두 군현이나 세 군현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도의 경계에 사는 농민들은 다른 도에도 토지를 가질 수 있다. 대토지소유자의 경우에 군 단위의 통계는 그 실상을 밝혀낼 수 없다. 예를 들어 광무 양안이 작성되던 시기에 이완용이 소유한 토지는 다음과 같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7]

①전남 목포 ②충북 진천군 광혜원 ③전북 김제군 만경 ④전북 진안군 ⑤경북 김천군 ⑥경기 통진군 ⑦경남 진주 ⑧전북 군산 ⑨경기 고양군 ⑩경기 수원군 ⑪평남 진남포

이런 목록을 보면 한 군의 통계만으로 전국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토지소유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전국 규모의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토지가 군 안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보통이었다.

광무양안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일부밖에 없고, 그것도 충청도와 경기도의 양안이 대부분이다. 대토지소유자가 전국에 소유한 모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을 수 없다. 다만 인접한 몇 개의 군에 산재된 토지는 이들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의 양안기록을 찾아서 모을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군 단위의 통계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주층과 자영농, 빈농층의 비율과 같은 구성비이다. 면 단위 통계에서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편차가 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군 단위로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파악할 때에 신뢰성 있는 통계치를 얻을 수 있다.

양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모두 중요한 1차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의 토지 소유 규모와 경작 규모는 물론 가옥의 크기와 위치 등은 인물의 거주지, 재산상태,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 지역의 유력가문이나 성씨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관아와 시장, 점포, 주막, 강당, 서당, 물레방아와 같은 다양한 건물들[8]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사료보다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관아 건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초등학교 등으로 만들어 원형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동헌이나 객사 그리고 作廳과 같은 건물이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양안에는 관아건물도 기재되어 있어서 『邑誌』와 함께 검토한다면 원래의 모습대로 재구성할 수가 있다.

주요 도로의 길목에는 오가는 행인들이 들러서 요기를 할 수 있었던 주막이 있었다. 인근 군현으로 가거나 읍내로 가는 도로상에 위치한 이런 주막의 기재 내용은 사회사의 중요한

7) 임대식, 「이완용의 변신과정과 재산축적」『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8) 이런 건물들은 사라진지 오래되어 현지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자체조차 모르게 된 곳도 있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작지가 넓은 지역의 마을 주변에는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역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사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1차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안 통계를 통해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된다. 여기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와 분석이 더해진다면 자료의 가치와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달한 컴퓨터 성능과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하던 다양한 통계처리와 분석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본 연구사업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2. 연구 내역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충북 근현대 사회경제 변동 연구”는 진천군의 양안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였다. 진천 양안의 통계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산화가 기본 목적이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해나가는 과제였다. 그리고 진천군의 토지대장과 농지개혁대장을 분석하여 “진천군의 근·현대 100년”이라는 부제대로 한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토지소유관계의 변천을 추적하였다. 진천군이 소장한 토지조사부와 토지대장의 열람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진천군의 협조를 얻어 열람 및 DB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9)]

진천군의 양안 자료를 이용하여 5명의 연구원이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광무양안을 연구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양안을 분석해서 토지소유 구조와 함께 농민층의 동향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진천지역의 자작농을 살펴보고 경영지주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농지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토지소유의 변화를 점검하였다. 또한 양안에 나타난 인물과 가문을 정리하였고, 진천에 설치된 驛土의 구조와 운용을 검토하면서 면리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진천군 양안을 다룬 첫 번째 연구를 종료하고, 2005년 9월에 다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충주와 여주 양안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강유역(충주, 여주)의 양안과 지역사 자료의 조사 및 전산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주의 경내 규모는 [표 1]과 같이 진천 수준이나 충주는 진천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다. 더욱이 실제 양안의 분량은 진천군의 4배가 넘는다. 그러므로 연구의 규모도 확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형과제로 시작했던 진천 양안 연구보다 중형과제로 변경하고 연구원도 증원하였다.[10)]

입력은 충북대학교 사학과의 학생들과 대학원생이 맡았다. 無味乾燥해 보이는 역사자료를

---

9) 토지대장은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DB화는 일부 면 지역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자료는 연구에 활용한 후에는 전량 폐기하였다.

10) 양안의 분량은 방대하다. 1개 면에 최소한 3,000 이상의 필지가 있다. 충주와 여주처럼 대읍이고 평야가 넓은 지역은 다른 지역의 면에 비해 2배, 3배의 이상이다. 충주의 경우 38개 면이 있는데, 양안을 A4 용지로 복사하면 1개 면이 400~800 쪽이 된다. 평균 600 쪽으로 잡아도 38개 면이면 22,800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1쪽 당 10필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총 필지수는 228,000 필지이고, 1필지 당 10여 이상의 항목이 기록되었다. 모두 최소한 2,280,000 회수를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엄청난 분량이므로 개별 연구자가 1개 군현의 양안을 빠짐없이 전산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밀하게 읽고 각종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은 인내와 더불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 필지의 수가 많았고, 잘 읽기 어려운 한자로 기재해놓은 비슷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까닭이었다.

[표 1] 진천 · 여주 · 충주의 비교(출전;『여지도서』)

지역	면(面) 수	경작지	호수	인구
진천	15	3,496결	6,163호	31,029명
여주	19	4,700결	6,800호	31,800명
충주	38	21,142결	19,624호	107,693명

충주와 여주양안의 입력과 분석 그리고 지역답사와 향촌사회사 자료의 수집에는 진천양안을 연구하면서 획득한 여러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 진천의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주와 여주의 통계와 서로 비교할 수 있었고, 진천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충주와 여주의 향촌사회사를 조사하였다.

남한강 유역의 충주, 여주 양안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는 논문과제는 제외하는 기초연구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양안 분석을 더욱 심화하면서, 양안 분석과 관련해서 인물, 가옥, 촌락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들이 분담하여 월 2회 정도 지역답사를 시행해서 바쁘게 보냈고, 연 1회 정도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주요 가문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양안자료를 보완하는 다양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변으로 펼쳐진 넓은 경작지와 그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살던 마을이 조사되었고, 특정한 성씨가 문중을 이루고 세거하는 마을과 조상 대대로 모셔진 선산을 소중히 관리해오는 전통을 알게 되었다. 커다란 기와집을 소유했던 地主家와 그들의 田庄이 운영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여주와 충주는 서울과 수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나루가 발달하였고,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주요 육로였기 때문에 교통로도 중요하였다. 조선시기에 사용하던 통행로는 현재의 포장도로가 아닌 나루와 나루, 마을과 마을을 잇는 수로와 육로였다. 나루가 있거나 가까운 마을에는 큰 지주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통로의 길목은 財富를 축적하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인물사 조사는 흥미로웠다. 서울에서 고위 관직을 역임한 인사들의 세거지가 있는 마을들을 확인하였고, 그런 인물들의 묘소가 여주와 충주에 산재해 있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여주에는 경내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유력한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1]

11) 이 지역에서는 여흥 민씨. 한산 이씨. 안동 권씨. 파평 윤씨. 청주 한씨. 평택 임씨. 광주 이씨. 남양 홍씨가 세거하였고, 고려부터 한말까지 李圭報. 李穀. 李穡. 韓兪. 李集. 廉興邦. 韓明澮. 權濫. 金安國. 李元翼. 宋時烈. 任士洪. 鄭麟趾. 李克堪. 金世弼. 朴祥. 許積. 林慶業. 李浣. 李瀷. 李家煥. 李重煥. 明星皇后. 李完用 등 중요 인물들이 성장하고 활동한 주요 근거지였다.

연구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2007. 09~2008. 08)에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화연구나 심층 조사를 수행할 지역과 인물을 선택하고, 양안의 통계자료와 결합하여 대표적인 촌락, 인물, 유적 등을 정리, 복원하는 지역사 자료집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행정구역을 복원하고 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Ⅲ. 전산화 작업의 방법

1. 입력과 교열

연구 진행은 양안의 전산화(DB화) ⇨ 교열 ⇨ 통계처리 ⇨ 정리 및 자료집 간행의 단계로 수행된다. 단, 지역사 자료의 수집과 답사는 전산화 과정 중에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양안의 전산화 작업은 양안의 항목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구성하고 양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타이핑해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양안을 DB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계와 분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항목 구성이 간단치는 않았다.[12]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구성할 때는 양안에는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양안의 항목 외에 통계 처리용 항목까지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연구 수행 중에 새로운 통계와 분석방법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항목이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입력방식을 변경해야 했다.[13]

이외에도 같은 항목이라도 양안마다 기재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여주양안의 기재방식은 충주에 비해 소략해서 정밀한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입력할 때 항목을 너무 세분하면 입력 자체가 착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입력의 편의성과 정확도도 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연구기간 내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자주 개량해야 했다. 따라서 입력 교열 단계를 지나 정리 단계로 갈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입력과 분석을 할 때도 더욱 편리한 구조 위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양안의 전산 입력과 교열,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양안을 입력할 경우 오타 발생률이 10%~20%에 달했다. 그 중에서

12)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Visual fox를 사용하였다.

13) 이러한 사례는 대단히 많고 복잡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양안에는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대지소유주와 가옥 거주자를 시주, 시작, 대주, 가주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지로 표시된 부분이 순수한 집터가 아니라 경작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목에서는 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과 답으로만 구분했다. 따라서 DB항목에서 시주, 시작, 대주와 가주를 구분하면 입력할 때 착오도 많이 발생하고, 토지소유 통계를 낼 때 항상 시주와 대주를 합한 통계를 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그렇다고 대주, 가주를 시주, 시작에 포함시켜 버리면 지목은 전과 답으로만 구성되므로 대지의 통계를 내거나 대지를 제외한 토지소유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DB항목 구성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현재는 대주, 가주를 시주, 시작 항목에 통합해서 정리하고, 대지는 호를 별도로 표시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 오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漢字 人名으로, 전체의 80% 정도에 해당했다. 양안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글씨를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서 각기 필체가 다르고 정자로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반초서의 필체 중에는 읽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래서 입력을 담당한 연구보조원들이 판독하지 못해서 오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양안에 기록된 한자 인명에는 字典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두이거나 한국식 한자 표기가 많아서 오독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자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자 입력은 먼저 한글로 입력한 뒤 일일이 한자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오랜 시간 입력할 때 피로해서 오타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름표기에 자주 사용되는 한국형 한자를 선정하여 연구보조원들에게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4차례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사용법 및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자 오독 및 컴퓨터 운영 능력 미숙으로 인한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표 2]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성(2008년 1월 현재)

번호	필드명	Type	입력내용	용도	비 고
1	NONO	N	전체 일련번호	통	
2	ML	C	소재면(面)	양	
3	MLNO	N	면별 일련번호	통	
4	PLACE	C	소재 지명	양	
5	JA	C	字丁	양	
6	BUN	N	자정 단위번호	양	
7	JD	C	田, 畓 분류	양	
8	LEV	N	토지등급	양	
9	JP	N	척수/결부수	통	
10	JUK	N	면적(척수)	양	
11	KYUL	N	면적(결부수)	양	
12	SIJU	C	시주(한글이름)	양	
13	SIJU2	C	시주(한자이름)	양	
14	SIJAK	C	시작(한글이름)	양	
15	SIJAK2	C	시작(한자이름)	양	
16	HOUSE	C	초가, 와가, 공해	양	
17	HO	N	호수	통	호수 통계용
18	KAN	N	초가 칸수	양	
19	WAKAN	N	와가 칸수	통	와가 통계용
20	YONG	N	물레방아	양	
21	BIGO	C	비고	통	
22	NOTE	C	무주, 진전, 응탈표기	통	
23	CODE	C	토지 종류분류	통	개인, 기관, 동전, 위전 등
24	코드명	C	시주 명칭 재정리	통	시주 명칭 통일
25	현지명	C	현재 지명	통	위치 비정
26	FI	N	필지	통	필지수 통계용

※ C=문자필드, N=숫자필드, 양=양안항목, 통=통계용 필드

한자 전환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타는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한자 전환입력 과정의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력 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한자 인명을 제외한 항목을 입력하는 과정과 한자 인명 전환을 전담하는 두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의 입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부 과정에 있는 연구보조원은 인명 이외에 면, 지명, 토지면적, 토지구분, 가옥 등을 입력하게 했다. 이 부분의 입력은 입력 항목이 많고, 단순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면이나 지명, 자정(字丁) 등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항목은 되풀이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앞의 항목이 자동 입력되게 했으며, 자정의 번호와 같은 일련번호 역시 자동적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한자 인명 전환은 연구원과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보조원이 전담하게 했다. 한자 인명 전환 방식도 개량했다. 이전에는 키보드로 한글을 입력한 뒤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 일일이 전환하는 방법을 썼으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한자 인명을 미리 작성해 둔 한자 인명록에서 찾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다. 한자인명의 입력 속도가 증가하고, 오타발생률이 90%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입력의 정확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교열과 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개선시켜 주었다. 만약 입력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입력에서 교열에 걸리는 시간 부담으로 인해 지역조사, 지명복원 등 추가 연구와 작업에 투입할 시간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교열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컴퓨터 파일의 수정은 연구보조원이 담당하였다. 교열 횟수는 계획안에서는 3회에 거치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래밍 입력 방식의 채택으로 오타율이 줄어듦에 따라 교열에 걸리는 노력과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양안의 분량이 많고, 항목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열의 횟수 자체를 줄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일반 교열보다도 더 중요한 교열이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양안에 기록된 시주와 시작의 경우 동일한 항목이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안에서 개인 시주와 시작은 인명만을 기록하고, 지목(田과 畓)은 별도 항목을 기록했다. 그런데 시주가 관청, 기관, 사원, 단체 등일 경우 현지에서 부르는 관습대로 역전●역답, 동전●동답, 충훈둔전●충훈둔답 등으로 시주 명에 전답 명칭까지 혼재해서 표기하였다. 묘위전●묘전, 영친왕(英親王)●영왕(英王) 등과 같이 동일한 시주명이 처음부터 여러 개의 명칭을 지니는 경우도 있다.

두음법칙에 의한 한자의 한글표기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 한글 표기법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다. 양안에 인명을 기재할 때에 비슷한 한자를 오기하거나 기재하는 사람에 따라 약자를 사용하거나 해서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갑'이라는 사람이 20개 필지에 시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필지에서만 '을'로 표기된다면 통계상으로는 19개의 필지를 소유한 '갑'과 1개의 필지를 소유한 '을', 두 사람으로 분리된다. 특히 '을'은 단 1개의 필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하의 극빈농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간의 양안 연구에서 연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생각보다도 낮은 농민들의 토지소유규모와 다수 극빈농의 존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빈농을 양산하게 되는 이 같은 오류가 전체 통계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토지, 관청 토지, 위전, 동전, 사원전, 궁방전, 무주전 등 주요한 토지종류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 통합 항목명(예: 역전●역답 ⇨ 역전답)을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추가로 2회의 교열과정이

더 필요하였다. 추후에 새로운 양안 입력 사업을 전개할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소 5회 이상의 교열 과정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전산화 과정의 어려움과 과제

전산화 작업에서 상존하는 난제는 양안 자체의 문제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양안이 지닌 문제를 보면 군현별로 기재한 내용을 비교할 때 충실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광무 양안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한 토지측량 사업을 도중에 체제를 개편해서 처음에는 量地衙門에서 담당하다가 뒤에는 地契衙門으로 바꾸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양안 중 진천과 충주양안은 지계아문에서 작성한 것이고, 여주양안은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양안이었다. 그런데 양지아문의 양안은 지계아문 양안에 비해 기재 내용의 정밀도와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두 양안의 기재 내용을 서로 대조하면, 가옥의 표기는 진천과 충주양안은 정밀하게 되어 있고, 반면 여주 양안에는 면별로 누락되거나 칸수 표기가 빠진 곳이 많았다. 지명도 진천과 충주 양안은 세분화된 지명에 맞추어 표기해서 현재의 지명을 확인하기만 하면 토지, 가옥의 위치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다. 그러나 여주 양안은 몇 개의 지명을 합쳐서 표기해서 잘 알 수 없게 해놓았다. 따라서 여주 양안의 기재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옥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자체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복원이나 가옥소유주의 확인과 건물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양안의 입력과 연구를 기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양안을 작성한 아문과 기재 수준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컴퓨터 기능의 꽃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중요하고 획기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일상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워드 프로세서나 계산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 기능을 보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다 고급의 기능은 업종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흡수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드물어지고,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된 것들로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환경에 맞추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한글화가 불충분하고, 윈도우상에서 확장 한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2,500여 자의 기본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글자 폰트의 형태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등 시각성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안의 입력과 출력을 전담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한국역사정보시스템의 자료처럼 앞으로 웹상에서 양안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웹상에 틀을 구축하기에는 입력한 양안의 수가 모자라고, 관리 및 유지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양안마다 구성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서 입력과 분석틀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이라 표준화된 구조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양안 전산화 작업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연구의 분야별 내용과 성과

양안 전산화의 최대 장점은 통계 처리에 있다. 토지면적의 합산과 분류는 이론적으로는 수작업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토지면적을 합산하는 작업만 해도 한 군 당 5만~15만개에 달한다. 이런 방대한 내용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정 개인이나 가문의 총 소유 토지나 경작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1개 군 당 5만개에서 15만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개인별 토지소유나 경작현황을 정리한다는 것은 소모적이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표 3] 광무 양안 DB화 작업 결과

구분	면적	데이터 수	비고
진천	3,688결	47,050	15개면
여주	4,010결	65,240	19개면
충주	15,390결	152,870	38개면

* 1결은 200두를 생산하는 면적

데이터베이스의 찾기와 정열(소트) 기능을 이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이 정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더하면 수작업으로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복합적인 통계와 분석이 가능해 진다. 개인별 토지소유지와 경작지를 정리할 수 있고, 소유지와 경작지를 비교하여 소유지가 전혀 없는 무전농민의 수와 비율을 추출할 수도 있다.

진천양안의 통계와 비교하면 충주양안의 통계는 大邑의 규모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보여준다. 몇 가지 분야별 항목을 들어 그 내용을 들어본다. 이에서 주요 성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충주양안에는 궁방전을 비롯한 역전, 관둔전, 사원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 토지들의 경작자들을 뽑아내고 그 토지소유 및 경작규모를 통계 내면서 개인 경작지의 농민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4]는 궁방전의 통계이다.

[표 4] 충주군 궁방전 현황

궁방	소유 토지(결)	소유가옥
명례궁	28결 23부 1속	3
안흥궁	9부 4속	0
운현궁	14결 00부 0속	10
흥인궁	18부 9속	0

궁방전은 조선후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조세와 소작료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주목되었다. 역둔토에서도 경작민의 항쟁이 빈발했다. 역촌의 거주민은 일반 촌락의 주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대체로 역촌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도 일반 농민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알려져 왔다. 궁방전 농민의 처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농이라는 설과 그 반대라는 두 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역촌 주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일부 문헌기록과 지역사회에서 전해져 왔다.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는 궁방전과 역둔토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개 면의 사례에 의해 궁방전과 역둔토를 경작해온 농민의 처지를 추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궁방전이나 역토의 경작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새로운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의문에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궁방전이나 역토 이외의 문제에도 양안 자료를 분석하면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조사를 통한 현장 확인이나 향촌사회사를 전해주는 여러 사료와 결합한다면 그 활용범위와 효용성은 매우 넓을 것이다. 몇 가지 흥미 있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한다.

진천 양안은 2004년에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다. 새로운 통계 분석 작업도 시행하여 지금까지의 양안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던 진천군 거주자의 총토지 소유 현황, 총 경작지 소유현황, 소유토지의 분포현황, 주점, 점포 현황, 시주와 작인의 경작관계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기존의 면 단위의 양안을 분석한 통계와 상당히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조선 사회의 현상에 대해 많은 새로운 지식과 시사점을 주었다.

[표 5] 진천군 상위지주

순위	이름	소유면적	가옥수	순위	이름	소유면적	가옥수
1	역	54결 81부 6속	77	10	이종건	12결 82부 1속	30
2	이경팔	27결 01부 7속	41	11	채규진	12결 65부 4속	8
3	안대복	24결 61부 8속	36	12	조백만	12결 43부 7속	11
4	태량역	23결 84부 5속	31	13	조태복	12결 18부 8속	32
5	신 귀	20결 79부 9속	18	14	정일춘	11결 85부 7속	12
6	한규설	18결 22부 9속	12	15	조창호	11결 52부 1속	11
7	김진달	16결 04부 1속	0	16	정도원	11결 52부 0속	10
8	민영준	13결 62부 8속	30	17	이상설	11결 39부 0속	11
9	동답	13결 62부 8속	4	18	신갑균	11결 25부 4속	16
10	채규봉	12결 86부 6속	23	20	이종승	10결 54부 8속	0

[표 5]는 진천군에서 가장 많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다. 주요 특징들을 들자면, 郡 전체의 토지 중에서 驛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관청이나 기관 소유의 토지는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심했다. 나중에 여주와 충주의 현황과도 비교해 본 결과 郡마다 역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공통적이나 관청, 궁방 토지의 비율은 군마다 크게 차이가 났다. 즉 교통로를 관장하는 기관인 驛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적지 않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궁방전은 지역에 따라 설치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진천군의 최고 지주 중에는 부재지주가 분명한 한규설, 민영준과 같은 서울의 유력 관료에서부터 신귀와 같은 진천의 양반가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진천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김진달과 이종승은 다른 군에 세거하는 인물로 생각되고, 여러 채의 가옥을 가졌지만 時作을 정착시키기 위한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도 있을 것이다. 지주 중에는 또한 현재 후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분과 가문의 내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향리나 평민 출신의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명문 양반이 지주로서 향촌사회의 농민들을 지배해왔던 구조에서 신분질서가 무너진 후 낮은 신분의 인물들도 능력에 따라 경제력을 갖게 된 현상을 보여준다. 신분제와 경제력 간의 괴리현상을 양안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표 6] 충주군 상위지주

순위	이름	소유면적	순위	이름	소유면적
1	민병한	79결 52부 2속	11	이종태	38결 97부 1속

2	민응식	77결 95부 6속	12	민영준	36결 88부 8속
3	한성회	63결 39부 4속	13	한백영	35결 93부 1속
4	홍순형	62결 58부 3속	14	김용규	34결 09부 1속
5	민형식	54결 18부 5속	15	정보원	33결 95부 1속
6	한경회	49결 00부 4속	16	조순구	33결 85부 5속
7	민병석	45결 86부 1속	17	김영시	33결 51부 3속
8	이종건	41결 34부 0속	18	민형기	32결 59부 4속
9	민병승	40결 98부 0속	19	구형조	29결 90부 1속
10	김갑규	40결 47부 5속	20	정필원	27결 51부 2속

충주의 대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는 진천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역토와 동답을 제외할 경우 같은 순위의 인물보다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다. 경작지가 넓고 경내가 큰 충주와 진천의 郡勢를 알려주는 통계이다.

충주에서 대토지를 소유한 성씨 중에 여흥 민씨가 여러 명이 나온다. 20위중에 7명이 민씨들이다. 高宗年間의 외척 세도정치의 실상이 충주의 토지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다. 민영준은 동일 인물로 진천과 충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충주는 지금 음성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지역은 인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주들은 토지만이 아니라 대지와 가옥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진천의 상위 지주들은 10채에서 50채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비록 대부분이 초가 2, 3칸의 작은 집들이다. 지주들은 토지에서 배제되어 떠도는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자기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주어 살도록 했다. 그런 사실이 양안에서 확인된 것이다.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양안 기록에서는 알 수가 없다.

조선사회의 주거생활은 열악하였다. 진천군에 소재한 6,769호의 가옥 중에서 기와집은 단 30채에 불과했다. 여기서 관청과 사원 건물을 제외하면 순수한 개인 가옥은 20채였다. 나머지 초가 중에서 1칸 가옥이 12채, 2칸 가옥이 1724채, 3칸 가옥이 2,915채, 4칸 가옥이 862채, 나머지가 5칸 이상의 가옥이었다. 이 통계로 보면 초가 3칸은 최하 수준의 가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주와 충주의 통계를 이와 비교하면 더 자세한 당시의 주거생활을 보여줄 것이다.

[표 7] 여주군 상위지주

순위	이름	소유면적	순위	이름	소유면적
1	민평근	32결 64부 9속	11	민순만	13결 44부 7속

2	김경태	22결 93부 9속	12	민명길	11결 53부 5속
3	민천만	22결 83부 8속	13	이만석	11결 50부 3속
4	송유덕	21결 64부 6속	14	박윤지	11결 42부 5속
5	김득이	19결 53부 5속	15	김용석	10결 58부 2속
6	김수길	18결 52부 3속	16	민창복	10결 57부 2속
7	이복쇠	16결 11부 9속	17	남용이	10결 34부 2속
8	김삼예	14결 32부 6속	18	이정용	10결 20부 7속
9	임쾌동	13결 96부 6속	19	박오봉	10결 07부 1속
10	민삼손	13결 88부 0속	20	조윤성	10결 07부 0속

여주의 대토지소유자도 진천과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진천과 여주와 충주를 비교하면, 20위에 속한 대토지소유자의 수와 토지소유의 규모가 약 3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에 여흥 민씨들의 수가 6명이 있다. 충주가 경내도 넓지만 경작지를 지배하는 20위권에 있는 지주들의 경작지가 3배나 넓었던 것이다.

DB를 이용한 분석은 시주와 작인 간의 인적관계도 규명해 주었다. 한 명의 작인이 동일한 시주의 전답을 경작하거나 동일 가문의 전답을 경작한다면 인적 예속관계나 공동체 구속력이 강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 그 같은 예측을 해왔던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양반 가문이 지배하는 마을이나 동족촌락인 경우에도 작인들이 한 시주의 땅을 경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외로 여러 시주들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생산력이 낮아서 적은 땅을 가족 노동력만으로 경작해서는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웠다. 가능하면 여러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안 기록은 기재 당시의 여러 사회사정을 알려주는 보고이기도 하다. 이름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호적대장이 남아있지 않은 현재 시주와 시작의 명단은 군내 주민의 성씨 분포를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이다. 사람 이름에 쓰는 글자도 유행하는 것이 있었다. 성씨에 따라 항렬을 보여주는 글자도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우리말 이름도 많이 나온다. 우리 귀에 익은 돌쇠 같은 인명이 있고, 짐승 이름을 딴 송아지·망아지·도야지 같은 이름도 있다. 刀也之는 뚱뚱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별칭이지만 이름자로도 사용되었다.

양안에 기재된 성씨에는 본관을 기록하지 않았다. 본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마을에 특정 성씨가 집중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도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성바지 마을에서 양안에 나오는 인물이 어느 본관인지는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서 족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동성동본마을이거나 특정한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던 성씨는 양안 기록을 통해 그 사실을 통계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흥미 있는 또 다른 자료가 稀姓에 관한 내용이다. 양안에 입력된 성씨를 보면 매우 드문 姓이 간혹 나온다. 이들 성씨는 여러 군현에 흩어져 살던 大姓과 비교되는데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군에서는 일부 마을에 여러 명이 거주해서 흔한 성처럼 보이지만 드문 성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군의 양안을 통계 낼 때 희성에 관한 분포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안에는 주점의 위치도 보여준다. 진천의 경우 11개의 주점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곡면과 백곡면에 있다. 이곡면의 주점은 진천을 남북으로 가르는 주 도로에 위치해 있다. 백곡면은 진천군에서 제일 지형이 험한 산악지역으로 역이 위치하고 장이 섰던 주도로의 연변과 길이 험하고 고개가 많은데 주로 이 고개에 주점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진천 양안을 입력하고 통계를 낸 자료를 활용해서 양안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논고와 통계자료를 모아 2007년『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변동』(혜안, 2007)을 간행하였다.[14)]

진천 양안 연구는 처음 군 단위 전체의 통계를 냈던 연구였던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 양안의 통계 자료를 지역사와 인물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거해온 가문들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서 주민들에 관한 기초조사가 필요했는데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각 마을의 입지 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였다. 서부의 산줄기에 있는 마을의 특징과 하천 가에 펼쳐진 들판에 위치한 마을의 특징은 다르다. 특히 농업지역과 상업지역과 같은 인문 지리적 요소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면 여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읍내와 외촌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장시가 설치된 지역과 광혜원 등 교통의 요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양안에는 토지 지목이나 소유주 등을 조사할 때 군별로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여주는 다른 군에 비해서 궁방전과 사원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의 원찰인 신륵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주군의 대찰인 봉영사, 수종사, 용문사의 토지도 여주군내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수종사는 신륵사와 마찬가지로 세조의 보호를 받아 왕실의 사찰로 성장한 곳이다.

[표 8] 여주군 사원전 현황

사원	소유 면적	비 고
묘련사	1부 6속	미상
신륵사	18결 60부 4속	여주군 신륵사, 세종대왕의 원찰로 특별대우
봉영사	76부 9속	양주군 소재.

14) 이 책은 총론 1편과 10편의 글로 구성되었다. 부록으로 1. 면별 잔답 및 대지 현황 2. 면별 위토 설치 현황 3. 면별 동답 설치 현황 4. 개인별 전답 소유 및 경작 현황 5. 관아 및 사원 설치 현황 6. 개인 가옥 및 물레방아, 주점 현황을 모두 34개의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수종사	4결 81부 6속	양주군 소재. 세조가 크게 중창함
용문사	1결 30부 5속	양주군 용문사
계	25결 51부	

군마다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양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선사회의 일반화된 사회경제 사정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양안의 통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소수 지역에 대한 샘플링 작업으로는 곤란하고, 몇 개의 군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두 번째 연구에서는 진천보다 크고, 행정상의 위상도 높았던 충주와 여주를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많은 사족 가문이 존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최고의 교통망이며, 상업지역을 형성했던 남한강 유역의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업지역, 농경지역, 산간지역의 분석과 비교는 대단히 흥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천군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지역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충주와 여주연구에서는 답사 및 현지조사의 비중을 높였다.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군의 경우처럼 개별 논문으로 발표하는 대신 지역조사의 결과와 양안의 통계를 이용한 지역사 자료집 편찬을 기획하였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는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우선 광무 양안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동성동본마을을 이루어 살던 주민들의 구성은 크게 달라졌다. 大姓의 경우 同族마을과 先山 그리고 位土로 상징되는 것인데 선산은 그대로였지만 동족마을의 주민 구성과 위토는 매우 달라져 있었다. 동족마을에는 오래 세거해오던 성씨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으나 이미 다른 성씨가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양안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동족마을의 모습은 이미 상실되어 있었다.

마을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인다. 농촌마을에 한정한 경우, 100년 전과 50년 전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면, 50년 전에 가장 戶數가 많았다가 현재는 크게 축소된 상태로 변화되었다. 100년 전은 양안과 읍지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했고 50년 전은 주민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추세를 전하는 것이지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위토는 선산을 관리하고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성씨별로 설정한 것인데 宗中, 宗田, 宗畓, 祭田, 祭畓, 墓田, 墓畓, 位田, 位畓, 壇畓, 壇位畓 등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壇畓과 壇位畓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이후 서원에 모셔져 있던 위패를 땅에 묻고 서원전의 이름을 바꾼 것인데 서원 관리를 주도했던 특정성씨가 그 이름으로 보유한 것이다. 위토는 종손의 이름으로 등기된 이후에는 개인소유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門中에서 관리하는 일부의 토지 이외에는 위토 성격의 토지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다음은 진천에서 위토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李氏位土, 金宗田, 金氏位土, 林氏位土, 鄭氏位土, 李氏宗畓, 洪氏位土, 閔氏位土, 金氏宗畓, 朴宗田, 朴宗田, 金氏墓, 南氏位土, 沈氏位土, 吳氏墓, 李氏墓, 朴氏位土, 嚴氏宗畓, 林氏宗畓, 南宗田, 鄭氏墓位, 尹宗田, 趙氏位土, 趙氏祭畓, 申氏位土, 洪氏宗畓, 姜氏位土, 任祭畓, 金祭田, 朴祭畓, 趙氏墓, 柳氏位土, 金墓田, 鄭氏宗畓, 兪氏宗畓, 尹氏位土, 申氏宗畓, 趙氏宗畓, 孫氏宗畓, 南氏墓位, 崔氏位土, 許氏墓, 申墓畓, 宋氏位土, 郭氏墓, 申氏祭田, 申樫宗畓, 郭氏位土, 朱宗田, 韓氏位土, 許墓田, 金祭田, 文宗田, 朴氏祭畓, 吳氏位土, 裵氏位土, 張位土, 許宗畓, 權氏位土, 趙墓田, 姜氏祭田, 崔氏宗畓, 李氏位土白洛面, 申氏墓位, 劉祭畓, 申墓田, 孔氏位畓, 尹哥位土, 尹墓畓, 玄氏位土, 文氏位土, 崔墓石, 千氏位土, 蔡氏墓, 兪氏墓, 尹氏墓位, 蔡氏位土, 梁氏位土

한 성씨 안에도 계파나 위토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드러난다. 大姓은 여러 지역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많은 위토를 갖고 있었지만 어느 성씨는 선산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적은 규모의 토지를 위토로 운영하였다. 충주와 여주의 위토가 정리되어 통계가 나오면 巨族大家가 많이 세거했던 이들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地名은 양안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1900년대 초에 기재된 지명은 당시 주민들이 불렀던 마을이나 대지 그리고 들판의 이름을 망라해놓은 것이다. 양안은 세금을 걷는 대장이기 때문에 경작이 되는 토지는 위치와 함께 모두 기록하였다. 충주 가차산면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69개 들판의 이름이 확인된다.

荷潭前坪, 梨木坪, 淸明洞坪, 驟雨谷坪, 驟雨谷下坪, 小荷沼谷坪, 澣所岩坪, 小荷潭谷坪, 斗潭前坪, 冷泉谷坪, 斗潭西峴, 元哥谷坪, 斗潭上坪, 五里木谷, 谷斗潭坪, 發卽谷坪, 龍山谷坪, 龍山谷下坪, 莫峴坪, 繩洞前坪, 繩洞後坪, 多岩谷上坪, 多岩谷下坪, 雲橋坪, 杻洞前坪, 大坪, 大野坪, 蜇花里谷, 蜇花里谷坪, 下岑坪, 沙浪洞後坪, 沙浪洞坪, 沙浪坪, 沙浪前坪, 沙浪谷坪, 沙浪谷, 內洞坪, 基洞上坪, 基洞下坪, 檜花谷坪, 金長坪, 長金坪, 外永琴坪, 內永琴下坪, 寺谷, 寺谷坪, 戰田坪, 戰田下坪, 卿村前坪, 槐亭坪, 大味前坪, 月湄谷坪, 大味前坪, 水踰峴, 月帽谷坪, 甘芝谷坪, 麻沙前坪, 下麻沙洞坪, 外長牙谷坪, 外長牙寶坪, 朴坪, 沙川前坪, 梧山後坪, 飛山洞坪, 注羅坪, 下洞古池坪, 上洞古池坪, 內長牙谷坪, 休巖前坪

38개면이 있는 충주에서 경작지를 기록한 이름이 한 면에 69개 전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단순 계산해도 2,600개의 구역을 찾을 수 있다. 양안에 기록된 이 이름은 마을 이름이나 고개 이름을 그대로 쓴 것도 있지만 坪을 붙여서 경작지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집을 짓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垈地와 함께 가옥의 칸수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금을 받지 않는 林野는 기재하지 않았다. 山地는 중요한 매매 대상이었고 땔감을 마련하거나 조상의 산소를 모셨던 곳이다. 잡초가 무성한 하천변도 세금을 내는 토지가 아니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곳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四標를 표시하면서 논과 밭의

경계부분의 이름은 기록되기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한 곳도 있다.

경작지의 표시는 千字畓의 순서에 의해 기록되는데, 필지마다 마을이름과 함께 골짜기의 이름 그리고 마을과 들판의 모양이나 위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써놓았다. 마을과 관련해서 前後左右의 위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고, 上下에 따라 들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한자 이름이 많으나 순 우리말로 부르던 이름을 한자식 표기로 쓰여진 것들도 보인다. 사람이름뿐 아니라 땅이름 연구에서도 양안의 기재 내용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크고 작은 들의 이름들 중 사라진 것이 적지 않다. 공단이 조성되거나 큰 공장이 들어서면 몇 개의 마을이 사라지게 되고, 제방을 쌓고 큰 길을 새로 만들고 포장하면 지형이 달라질 뿐 아니라 들판이 없어진다. 산골 깊숙한 곳에 형성된 마을들이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마을의 이름과 주위의 들판에 붙여졌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충주호와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면 몇 개의 마을이 이전해서 폐허가 되고, 수몰이 되면 마을 이름이 영영 사라진다. 충주호의 유역면적은 6,648㎢[15]이나 되고, 그 일대의 마을과 들판의 이름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

관아의 경우 『읍지』에 관련 기록과 지도가 남아있으나 매우 소략해서 복원자료로서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양안에는 관아 건물이 몇 채인지, 크기와 칸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東軒과 內衙와 함께 客舍에 관한 기록이 있고, 作廳과 將廳과 더불어 창고 등 부속건물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은 官衙를 복원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연구 결과의 활용과 전망

이상에서 광무 양안 전산화 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개 군의 데이터 수는 265,160점에 달한다. 이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과와 의의를 미리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무 양안은 세계적으로 드문 방대한 자료인 까닭에 그 전산화는 중요한 연구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사학계는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일제 식민사학을 통해 왜곡된 정체성론의 근거들이 이로써 부정되고,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질서와 사상 등이 태동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조선사회를 이끌어온 기본질서였던 사회신분제가 변화된 배경에는 농촌사회에서 일어나는 농민층의 재편성과 같은 기층에서의 변화가 있었고, 그 동력은 財富를 축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일부 부농층의 篤農과 토지소유의 확대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면에 몰락한 농민들이 대규모

15)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의 충주댐 제원정보.

로 나타나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었고, 토지에서 배제된 농민들 중에는 도시 소상인과 광산 노동자 등으로 살아갔다고 하였다.

이 같은 연구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것은 조선왕조에서 작성한 量案이었다. 양안 기록을 정리한 통계는 농민들의 토지소유를 명료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代案이 없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한 해석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의 성격상 누구도 쉽게 이 통계를 구사하기 어렵게 했던 것이다.

양안을 전산화해서 통계를 내고, 지역사 조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이 작업은 한국사 연구에 긴요한 기본 자료를 생산해내는 토대연구가 된다. 여기서 나온 성과는 여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가 1900년대 초까지 조선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상을 정확하게 밝혀낸 것인지 통계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종래 면 단위의 통계로 설명한 내용이 일정한 추세를 밝혀낸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沿海지역과 같이 지역 배경이 다른 군까지 양안 전산화 사업을 확대했을 때 전근대의 마지막 시기에 농촌사회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그 성격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소유를 비롯한 농업사 자료로 활용되던 양안은 향촌사회사 연구에서도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안 통계에 의해서 향촌사회에 세거하던 양반 거족대가와 평민 성씨의 수와 그들의 경제력에 관한 기초 자료가 제공될 것이고, 이를 통해 각 문중이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어떤 위치에 존재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각 지역에는 그 일대에 모여 살던 稀姓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수가 양안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희성에 관한 연구도 양안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면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활약하던 인물 중 진천·충주·여주 출신인물이 양안에 나온다면 그들에 관한 여러 배경을 조사할 수 있다. 중앙의 고위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양안 조사지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 마을과 문중조사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그가 가진 위치를 알 수 있고, 양안을 통해 그의 경제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 양안 자료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역사 자료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는 1차 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아와 역촌 등 官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향촌의 정치생활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사찰과 서원의 토지소유가 갖는 의미를 캐어낼 수 있을 것이고, 궁방전을 비롯하여 충훈부·병조 등 중앙부서가 향촌사회에 보유한 토지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향촌사회 농민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양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영농의 토지소유와 경작 그리고 빈농의 생활상이 時主와 時作의 통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瓦家와 草家의 규모로 주거생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講堂의 존재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학을 가르치던 서당이나 신식학문을 가르치던 학당으로 기능했던 강당은 지금 이름만 남아있으나 양안에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충주와 여주는 청일전쟁에 대비한 일본군 병참선로가 지나간 곳으로서 일본군 병참기지와 전신소 등 병참과 통신기지의 흔적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군 사단병력이 부산에서 서울·평양으로 이동하고 수시로 교체병력이 지나간 이 지역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했던 동학농민군과 의병이 활약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일본군의 유적을 병참부가 위치했던 안보와 가흥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도하와 수로 운송작전이 펼쳐진 荷潭과 可興의 나루와 관련한 기록도 찾아보아야 한다.

호적대장이 대부분 멸실된 오늘날 조선후기에 살았던 한 향촌사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양안은 귀중한 우리 이름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필지마다 기재한 소유자와 작인의 이름을 검토하면 각 문중의 항렬과 돌림자 사용의 비율을 알 수 있고, 순수한 우리말 이름자의 표기를 찾아볼 수 있다.

地名은 양안뿐 아니라 『읍지』에도 나오지만 양안의 기록이 훨씬 자세하다. 양안 작성 당시 경작지와 대지는 일일이 그 지명을 기록하였다. 당시 주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마을·골짜기·들·고개 등의 지명이 생생하게 양안 기록에 남아있다. 지금은 지형이 변화되어 이름이 사라진 것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 연구에서 양안은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양안 기록은 이처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개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안이 지역사와 사회사의 자료로 이용하려면 지역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관찬사료에 나온 모든 관련기록을 종합하고 지금 민간에 남아있는 문헌자료와 함께 양안 기재내용을 실제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양안에 나온 인물들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부와 증조부나 고조부들이다. 조모와 증조모에게 들은 집안 이야기들에는 이들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있다. 地主家는 지주가대로, 마름 등 가산관리자는 가산관리자대로, 자영농은 자영농대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각 성씨의 문중에는 선대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그 같은 이야기에는 향촌사회와 관련된 문제부터 중앙정계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하다. 그러한 증언들을 수집해서 사료비판 과정을 거친다면 생동감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무양안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주로 충청도와 경기도의 양안들이다. 다른 지역의 것은 인멸되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양안을 모두 입력해서 통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존하는 일부 군의 통계는 한 세기 전의 시대상을 전해주는 일반화의 근거로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정을 전해주는 더 자세한 다른 자료가 없는 까닭에 양안의 전산화 작업은 이 시기의 여러 사정을 밝혀내는 토대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양안의 전산화 작업에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군현별, 지역별 차이를 밝히고 그 사회사 연구를 심층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안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